

국내 신규 박사인력 노동시장 이행실태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 2000년대 이후 학부 및 석사학위 취득자 수의 증가에 비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급인력의 양적증가는 대학의 연구역량 증진과 함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함.

-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2000년 6,141명에서 2016년 13,882명으로 126.1% 증가함.
 - 학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0년 214,496명에서 2016년 334,643명으로 56.0% 증가함.
 -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0년 47,226명에서 2016년 81,460명으로 72.5% 증가함.

표 1. 연도별 학위 취득자 수

(단위: %)

학위 구분	2000년	2016년	증감률
학사	214,496	334,643	56.0
석사	47,226	81,460	72.5
박사	6,141	13,882	126.1

- 2015년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41.2세인 것으로 나타남(박사조사(2015), KRIVET).
 - 미국 박사학위자 평균 연령은 31.6세(중위수)¹⁾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5).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Survey of Earned Doctorates.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하면, 2015년도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76.6%,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80.3%로 나타남.
 - 취업률은 교내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출한 수치임.
 - 비임금근로자에 속하는 이들의 규모가 전체 취업자 대비 석사는 9.2%, 박사는 13.8%에 달함(취업통계연보(2016), KEDI).

-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장병행자 비율은 48.6%로 절반 가까이가 박사과정 입학시점부터 수료 시점까지 직장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박사조사(2015), KRIVET).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조사(2016)를 이용하여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과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 대상은 2015년 8월 및 2016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로 응답자 7,938명임(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 취득자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920009)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 2회 국내 신규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업 과정 및 취업상태, 향후 진로 등을 조사

- 본고에서는 학위 취득 연령 및 소요기간, 박사학위 과정 진학 동기, 취업 상태, 고용 상태, 직장 유형, 임금, 박사후과정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를 제외한 응답자 7,938명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 65.5%, 여성 34.5%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5:3.5로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패널 브리프

- 직장여부별로는 학업전념자 48.6%, 직장병행자 51.4%로 박사과정과 직장을 병행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3.4%, 30~39세 미만 49.6%, 40~49세 미만 27.4%, 50세 이상 19.6%로 40세 미만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전체의 53.0%를 차지하며, 평균 연령은 40.9세인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원 92.5%, 전문대학원 7.5%로 박사학위 취득자 대부분이 일반대학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56.8%, 비수도권 43.2%로 수도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응답자가 비수도권 대학보다 13.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3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계열 19.9%, 자연계열 15.5%, 의약계열 13.3%, 인문계열 8.1%, 예술/체육계열 6.2%, 교육(사범)계열 5.6% 순임.

표 2. 응답자의 기본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938	100.0	대학원 유형	일반	7,338	92.5
성별	남성	5,199	65.5		전문	599	7.5
	여성	2,739	34.5				
직장여부	학업전념	3,817	48.6	지역	수도권	4,507	56.8
	직장병행	4,032	51.4		비수도권	3,431	43.2
연령	30세 미만	266	3.4	전공 계열	인문	646	8.1
	30~39세	3,937	49.6		사회	1,581	19.9
	40~49세	2,172	27.4		공학	2,490	31.4
	50세 이상	1,559	19.6		자연	1,226	15.5
	평균	40.9			의약	1,052	13.3
					교육(사범)	446	5.6
			예술/체육	489	6.2		

주: 1) 범주별 결측값으로 인해 각 범주별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범주별 결측값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

Ⅲ. 신규 박사인력 이행 실태

- 박사학위 취득자 중 43.2%가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의 절반 이상인 53.9%가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직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직장병행자의 경우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학업전념자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3. 진학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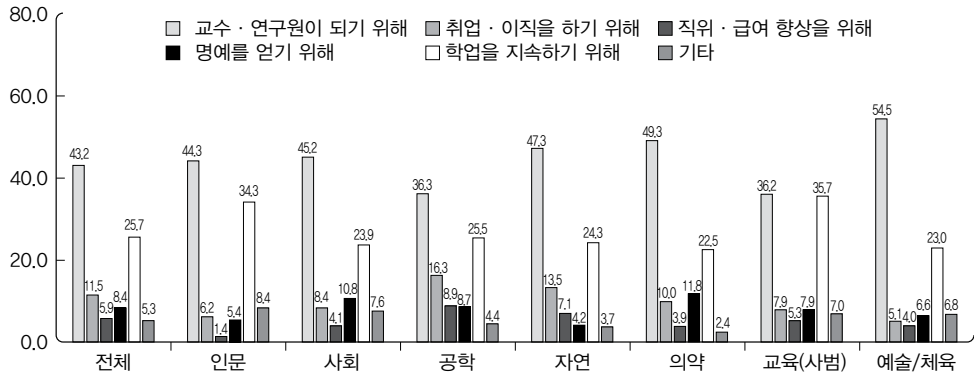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43.2	53.9	33.2
취업·이직을 하기 위해	11.5	14.6	8.5
직위·급여를 더 받기 위해	5.9	3.0	8.7
명예를 얻기 위해	8.4	2.9	13.6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25.7	23.0	28.2
기타	5.3	2.6	7.8

- 계열별로는 예술/체육계열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로 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사범)계열 및 공학계열은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한 비율이 각 36.2%와 36.3%로 타 계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계열별 진학 동기

(단위: %)



-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입학 평균 연령은 35.6세,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0.9세로 학위 취득까지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박사과정 입학 및 학위 취득 평균 연령, 학위 취득 소요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자연 및 공학계열의 입학 평균 연령이 각 30.9세와 32.1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입학 평균 연령이 42.2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위 취득 소요 기간은 인문계열이 6.0년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입학 평균 연령은 30.2세,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35.6세로 학위 취득까지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박사과정 입학 연령은 남성 29.4세, 여성 31.8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박사과정 진입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 및 예술/체육계열의 입학 평균 연령이 28.1세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인문 및 의약계열은 36.7세로 가장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학위 취득까지 소요기간도 6.6년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병행자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입학 평균 연령은 40.6세,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5.9세로 학위 취득까지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박사과정 입학 연령은 남성 38.7세, 여성 41.6세로 여성의 입학 평균 연령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위 취득 소요기간도 여성이 0.3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의 입학 평균 연령이 36.4세로 가장 낮은 반면, 학위 취득까지 소요기간은 6.0년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학위 취득 연령과 소요기간

(단위: 년, 세)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입학	취득	소요 기간	입학	취득	소요 기간	입학	취득	소요 기간	
전체	35.6	40.9	5.2	30.2	35.6	5.2	40.6	45.9	5.2	
성별	남성	35.8	41.1	5.3	29.4	34.7	5.3	38.7	43.7	5.0
	여성	35.3	40.5	5.2	31.8	37.1	5.3	41.6	47.0	5.3
전공 계열	인문	41.0	47.1	6.0	36.7	43.4	6.6	43.9	49.6	5.7
	사회	42.2	47.3	5.0	35.2	40.5	5.1	44.4	49.5	4.9
	공학	32.1	37.6	5.5	28.1	33.4	5.1	40.4	46.3	5.9
	자연	30.9	36.5	5.5	28.5	33.8	5.0	36.4	42.4	6.0
	의약	34.4	38.7	4.2	36.7	43.4	6.6	43.8	49.6	5.7
	교육 (사범)	38.8	44.1	5.4	35.2	40.5	5.2	44.4	49.5	4.9
	예술/체육	37.1	42.3	5.2	28.1	33.4	5.3	40.3	46.3	5.9

-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고용률은 75.0%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가 66.0%, 임시근로자 22.4%, 자영업자 11.6%로 나타남.
- 성별 고용률은 남성 77.2%, 여성 70.7%로 남성이 여성보다 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11.5%p 높게 나타남.
- 계열별 고용률은 의약계열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계열이 6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 비율은 예술/체육계열에서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패널 브리프

-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고용률은 60.6%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가 54.3%, 임시근로자 43.7%, 자영업자 1.9%로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고용률은 남성 62.6%, 여성 57.0%로 남성이 여성보다 5.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21.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고용률은 의약계열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계열이 54.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 비율은 예술/체육계열과 인문계열이 76.9%,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5. 박사 고용률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상용	임시	자영업	상용	임시	자영업	상용	임시	자영업				
전체	75.0	66.0	22.4	11.6	60.6	54.3	43.7	1.9	89.3	72.9	7.6	17.5	
성별	남성	77.2	69.7	18.0	12.3	62.6	61.2	37.1	1.8	91.5	74.8	6.5	18.7
	여성	70.7	58.2	31.6	10.2	57.0	39.6	58.1	2.4	84.8	69.1	16.1	14.8
전공 계열	인문	71.7	50.7	32.9	16.4	55.6	21.1	75.0	3.9	84.7	63.8	14.3	21.8
	사회	77.5	65.5	15.3	19.2	54.0	29.9	65.8	4.3	86.1	71.9	6.0	22.1
	공학	72.4	75.2	18.4	6.4	62.8	69.9	29.0	1.1	93.8	82.4	4.0	13.6
	자연	69.1	62.1	32.4	5.5	60.5	52.1	47.1	0.8	89.0	76.5	11.1	12.3
	의약	83.0	63.2	22.1	14.7	64.6	46.0	49.5	4.5	91.3	68.3	14.0	17.6
	교육 (사범)	81.6	73.1	18.8	8.1	57.5	38.7	59.7	1.6	92.1	80.3	10.2	9.5
	예술/ 체육	75.9	47.5	35.3	17.2	58.7	18.7	76.9	4.4	87.4	57.9	20.2	21.9

주: 1) 자영업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함.
 2) 범주별 결측값으로 인해 각 범주별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3) 범주별 결측값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

- 취업자의 직장 유형은 대학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업이 23.4%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예술/체육계열 및 자연계열의 경우 대학 취업자 비율이 각 44.4%와 41.7%로 절반 가까이가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43.8%가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직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직장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51.3%, 민간기업 26.0%로 대학 취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 취업 비율이 78.1%로 대부분이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43.8%가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직장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학업전념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사범)	예술/체육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사범)	예술/체육
대학	29.7	39.8	22.1	22.4	41.7	33.8	27.7	44.4	51.3	78.1	70.6	34.0	59.5	67.2	76.6	69.5
초중고	4.1	6.7	1.6	0.3	1.2	0.7	38.7	8.9	0.6	0.0	1.1	0.1	0.2	0.5	7.8	4.2
정부·지자치단체	6.6	6.9	12.2	4.4	8.8	1.5	5.6	8.0	1.9	3.9	2.7	1.5	2.9	0.0	0.0	2.1
공공연구소	6.7	1.4	2.9	13.0	11.7	2.2	0.8	0.6	9.1	1.6	5.3	11.3	12.8	4.5	0.0	0.0
민간연구소	3.0	1.4	3.0	4.2	3.3	1.5	2.5	2.9	3.6	0.0	3.2	4.7	2.7	3.0	3.1	4.2
공기업	3.7	1.8	7.3	5.0	1.4	0.6	2.0	2.3	1.1	0.8	2.7	1.4	0.8	0.0	0.0	0.0
민간기업	23.4	10.3	24.6	43.8	19.5	3.0	7.3	8.3	26.0	3.9	6.4	43.8	17.2	5.6	6.3	5.3
창업/자영업	5.7	5.7	10.7	4.0	3.2	4.4	2.5	9.5	1.4	1.6	1.6	1.4	0.4	3.0	0.0	3.2
기타 교육기관	2.0	3.9	3.2	0.2	0.5	0.3	7.8	5.7	0.6	3.1	1.1	0.0	0.0	1.0	1.6	4.2
병원 및 의료기관	9.1	1.1	1.8	0.6	5.4	50.6	0.8	0.9	2.2	0.8	0.0	0.4	2.5	14.6	0.0	1.1
재단/사단법인, 협회	3.1	7.6	6.3	1.4	2.0	0.9	2.2	4.0	1.0	2.3	3.2	0.9	0.2	0.5	1.6	1.1
기타	2.8	13.3	4.4	0.7	1.2	0.5	2.0	4.6	1.1	3.9	2.1	0.5	0.6	0.0	3.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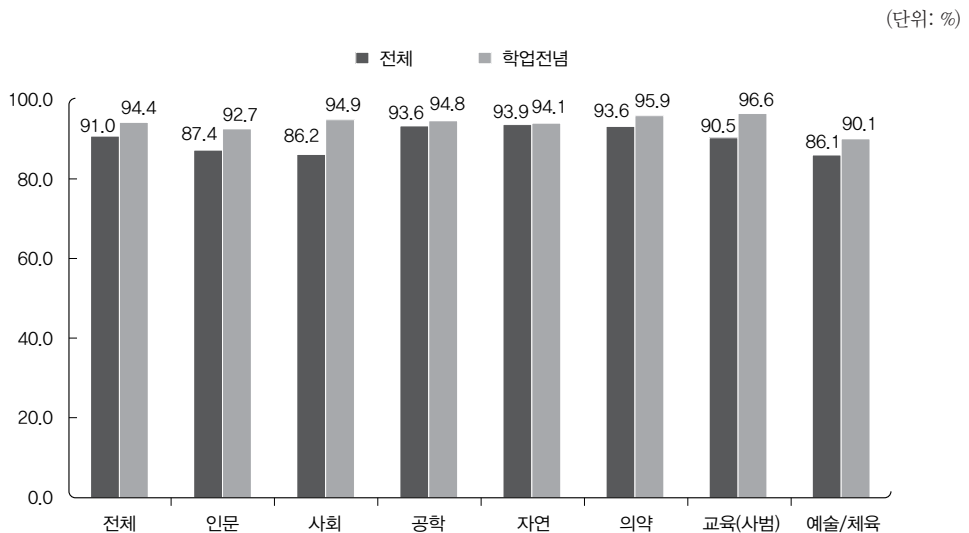
주: 1) 범주별 결측값으로 인해 각 범주별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범주별 결측값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

패널 브리프

- 취업자중에서 직장에서의 업무와 전공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91.0%로 대부분의 취업자가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 자연, 의약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업무와 전공관련성은 93% 이상이 높다고 응답했고, 예술/체육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전공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업무와 전공관련성은 94.4%가 높다고 응답하여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보다 학업전념자의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교육(사범)계열의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미만으로 나타난 계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계열별 업무와 전공관련성



주: 업무와 전공관련성이 '다소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 취업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5,043.4만 원, 정규직 6,216.7만 원, 비정규직 3,014.1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5,595.2만 원, 여성 3,874.8만 원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약 6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의 평균 임금이 5,852.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이 3,50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계열별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의약계열 4,741.7만 원, 인문계열 1,656.6만 원으로 계열별 비정규직 간의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3,822.0만 원, 정규직의 경우 5,692.8만 원, 비정규직은 2,565.2만 원으로 학업전념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7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4,334.2만 원, 여성 2,670.7만 원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6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4,836.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이 1,603.6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병행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5,893.5만 원, 정규직 6,402.6만 원, 비정규직 3,919.2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약 6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6,502.8만 원, 여성 4,654.5만 원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약 7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평균 임금이 6,741.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예술/체육계열 평균 임금이 4,196.2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열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정규직 대비 39.5% 수준으로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7.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5,043.4	6,216.7	3,014.1	3,822.0	5,692.8	2,565.2	5,893.5	6,402.6	3,919.2	
성별	남성	5,595.2	6,576.7	3,353.9	4,334.2	5,935.8	2,882.6	6,502.8	6,835.2	4,563.4
	여성	3,874.8	5,153.3	2,583.8	2,670.7	4,559.9	2,087.3	4,654.5	5,286.1	3,340.2
전공계열	인문	3,500.0	5,309.9	1,656.6	1,603.6	4,222.2	1,372.6	4,450.5	5,363.4	2,121.0
	사회	5,430.0	6,553.4	2,276.2	2,265.1	4,257.6	1,725.6	6,137.7	6,698.6	2,929.8
	공학	5,593.2	6,517.8	3,224.0	4,836.3	6,021.1	3,126.0	6,741.4	6,999.1	3,909.1
	자연	4,076.7	5,349.9	2,956.6	3,517.6	5,266.1	2,859.3	4,951.2	5,392.2	3,429.7
	의약	5,852.4	6,760.8	4,741.7	3,299.5	4,860.5	2,816.6	6,708.0	6,994.3	6,135.4
	교육(사범)	4,377.4	5,232.5	2,183.3	2,339.0	4,214.3	1,739.1	4,841.7	5,299.1	2,647.7
	예술/체육	3,532.0	5,267.4	1,748.1	1,769.7	4,136.4	1,296.9	4,196.2	5,323.3	2,161.8

주: 1) 비정규직의 경우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를 뜻함.
 2) 전체는 임금근로자를 뜻함.

- 미취업자의 선호 직장 유형은 대학이 56.8%로 가장 많은 미취업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연구소(20.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66.9%로 남성(49.0%)보다 17.9%p 더 높게 나타남.
- 계열별로는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대학 선호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각각 30.3%, 37.5%로 공공연구소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대학 취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89.5%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90% 가까이가 대학 취업을 선호하여 직장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미취업자의 선호 직장 유형

(단위: %)

구분	미취업자											
	대학	초/중/고	정부·지자치단체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공기업	민간기업	창업/자영업	기타교육기관	병원·의료기관	재단/사단법인, 협회	기타
전체	56.8	0.6	6.4	20.8	1.3	4.5	5.0	1.4	0.5	1.5	0.5	0.7
성별	남성	49.0	0.4	5.7	25.2	1.7	6.1	7.0	1.8	0.4	1.2	0.9
	여성	66.9	0.8	7.3	15.0	0.7	2.4	2.4	0.9	0.7	1.9	0.6
전공계열	인문	81.6	0.6	3.2	6.1	0.0	0.6	1.6	1.3	1.3	0.3	2.9
	사회	68.8	0.3	7.8	12.4	0.6	3.4	1.4	1.7	0.3	0.3	0.9
	공학	32.3	0.3	7.0	37.5	2.7	7.9	10.6	1.0	0.1	0.0	0.5
	자연	42.5	0.5	8.1	30.3	1.4	5.8	7.4	1.8	0.5	1.8	0.0
	의약	56.5	0.4	6.2	13.8	1.4	4.3	4.0	2.2	0.4	10.9	0.0
	교육(사범)	75.4	2.8	5.6	11.2	0.6	0.6	1.1	1.1	1.7	0.0	0.0
	예술/체육	89.5	1.0	1.9	2.9	0.5	1.4	0.0	0.5	1.0	0.5	1.0

주: 1) 범주별 결측값으로 인해 각 범주별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범주별 결측값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

- 박사후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전체 32.9%이며, 선호 국가는 한국이 74.7%로 나타나 박사학위 취득자 대부분이 국내에서 박사후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31.5%, 여성이 35.5%로 여성의 박사후과정 계획 비율이 남성에 비해 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후과정 국가는 남녀 모두 한국을 70%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이 50.1%로 가장 많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후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사범)계열이 22.4%로 박사후과정 계획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사후과정 국가는 전 계열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 자연, 의약계열의 경우 타 계열에 비해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박사후과정 계획 및 선호 국가

(단위: %)

구 분	박사후과정 계획	박사후과정 국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전체	32.9	74.7	17.9	3.9	1.2	0.4	1.8	
성별	남성	31.5	72.5	19.1	4.1	1.4	0.6	2.3
	여성	35.5	78.8	15.8	3.5	0.9	0.3	0.7
전공 계열	인문	35.5	85.6	6.4	3.5	2.5	0.5	1.5
	사회	27.0	83.5	9.6	1.8	1.6	0.5	3.1
	공학	32.1	68.0	22.7	6.2	0.9	0.3	1.9
	자연	50.1	69.9	21.9	3.9	2.0	0.5	1.9
	의약	25.3	74.8	22.4	2	0	0.4	0.4
	교육 (사범)	22.4	79.5	15.9	3.4	0	0	1.1
	예술/ 체육	35.8	88.5	8.3	1.3	0	1.3	0.6

주: 1) 범주별 결측값으로 인해 각 범주별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범주별 결측값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

IV. 요약 및 결론

- 박사과정 중에 직장을 병행한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40.9세로 고령화되고 있어 연구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박사학위 취득자 규모의 양적 성장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과 채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률이 60.6%이고 이 중 임시근로자 비율이 43.7%로 취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임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직장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이 51.3%로 절반 이상이 대학에서 박사후과정 또는 시간강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보여짐.

- 박사 취업자의 임금은 직무와 능력보다 연공서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 전체 평균 임금은 5,043.4만 원인데 반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다고 볼 수 있는 학업전념자의 경우 평균 임금이 3,822.0만 원, 직장병행자의 경우 5,893.5만 원으로 직장병행자 대비 약 6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고급 인력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진연구자 양성과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